

광주 학동 참사 후속대책 잇따라

조오섭 국회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 발의 김동찬 시의원 발의 '건축물 해체 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황도와 현장안전 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은미, 김원이,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문진석, 우원식, 조승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 지역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김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해체 공사 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수칙을 작성·배포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현장 점검, 기술 자문, 안전 교육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동찬 의원은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안전 관리 조직 육성,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시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당신에게 대구-광주란?"

광주-대구시, 달빛고속철도 기대감 담은 공동기획영상 제작

'달빛동맹' 도시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대구(광주)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시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기념해 '당신에게 대구(광주)란?'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양 도시 유튜브 공식 채널 '빛튜브'와 '컬러풀대구 TV'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달빛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것을 기념해 양 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유아, 학생, 주부,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각계각층 광주-대구 시민이 참여한 이번 영상은 "당신에게 대구는?", "당신에게 광주는?"이라는 질문을 한 뒤 5·18민주화운동, 2·28대구민주화운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등 역사, 주요 관광지, 음식 등

자신들이 경험했고 기억하는 광주와 대구의 대표 이미지를 진솔하게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지역민이 추천하는 관광지, 음식 등 그동안 지역 간 교류가 적었지만 달빛고속철도 개통 후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면 자주 방문하고 싶다는 등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답변이 많았다.

광주와 대구시는 이번 영상과 연계한 영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용만 광주시 대변인은 "20년 공동 수원사업이었던 달빛고속철도사업 추진을 기념하며 광주-대구 시민들의 서로에 대한 시선과 바람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 공동제작, 이벤트, 바이럴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양 도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간담회'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지지 서명식을 마친 총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관련기관과 협업 지역대학 위기 극복

도교육청·대학 등 정책간담회

전남도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도교육감, 유근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곡성군수), 박성현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목포해양대총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T/F)'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과 현안을 구체화해 법령개정, 정책건의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

을 위해 ▲지역대학 지원 전담조직 신설 ▲지역인재 채용제 및 현장실습 중소기업 지원 마련 ▲'지역상생형 대학' 운영 등을 건의했다.

박성현 협의회장은 "대학 혼자 힘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발굴, 확대해 지역과 대학이 상호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상생협력추진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담조직 신설과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 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대학 총장들의 유치지지 서명식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광주시, 235명 선발

광주시는 "2021년도 (제)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총 235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10월4일까지다.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11명, 대학생 114명 등 235명에게 총 2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부장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령기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2021년 9월2일) 현재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대학생으로, 분야별 장학금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다.

장학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선발 공고문을 참고해 대학, 자치구 등 관련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차기정부, 균형발전 전담 부처 신설해야"

김영록 전남지사 정례조회 강조 지방소멸 극복·지역 개발 협력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차기 정부가 정책 제1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총리급의 가정 국가균형발전부 전담 부처로 신설해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9월 정례조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가 없다"며 "전국각각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불균형 발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의 두 가지 핵심 기조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개발을 꼽았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관련 "그동안 경북도와 손잡고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전국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협력하는 등 전방위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행안부와 기재부의 공감을 끌어냈고, 특히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조성키로 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므로, 경북과 전북, 강원 등과 광역 협력을 통한 보다 강력한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전남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광역관광권을 형성해 남해안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은 협력체계가 관광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분야까지 확대해 강력한 조광역협력사업으로 추진, 진정한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 추석 대비 특별안전대책 추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덕동 차량기지를 비롯한 시청-광주역까지 본선 6개 공구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안전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공사장과 주변 환경정비 상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상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연휴 기간 건설장비 안전조치계획 등에 관해 집중 점

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안전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 (조건부)

대출 상담 환영

- 부동산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정책자금(햇살론)
-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원 상담 센터

건설경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전진속국립
광주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특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시에 연구원
광고개역 지점
동신대한방병원

양동초등학교
농성빛어울림아파트
월산동 명동반도유보아파트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특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